

국어·수학 처음부터 차근차근... 기초학력 격차 줄인다

전남교육청, 132개 초교 1700명 대상 국·영·수 방학캠프 1~2학년 읽기 부진학생 전담교사 배치 단계별 맞춤 교육 3~6학년 284명에 체험·놀이 중심 수학캠프 14곳 운영

전남교육청이 지난 1학기 '코로나 19'로 인한 휴업과 온라인 학습으로 발생한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름방학 중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기초학력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대부분의 학교가 지난 주부터 2주 정도의 짧은 여름방학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 132개 초등학교에서 1700여명의 학생들이 기초국어, 기초수학, 영어캠프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특히 전남기초학력지원센터는 이번 여름방학 동안 전문가를 초빙해 한글 미해득 학생 7명을 대상으로 학생의 읽기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지난 1학기부터 해운 읽기근란 학생에 대한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광주교대 통합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해 방학 중에도 운영한다. 여기에는 1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학생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도로 이뤄지고 있다.

도 교육청은 앞서 초등 1~2학년의 초기 읽기 부진학생 지도를 위해 전담교사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교사는 초기 문해력에 대한 최적의 학습법으로 능숙하게 학생을 지도할 역할을 갖춘 정규교원으로 올해 시·군에 총 34명을 배치했다.

도 교육청은 또 초등 3~6학년 284명을 대상으로 체험, 놀이 중심 수학캠프를 목포수학교육체험센터 등 14곳에서 운영했다.

이 캠프는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이른바 '수포자(수학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진행되는 현장 지원형 캠프이다. 숫자 크기 비교 게임과 덧셈을 이용한 수학 퍼즐, 주사위 분수놀이, 소마큐브를 활용한 수학놀이, 네이퍼어 급셈막대 등 교구를 활용한 수학놀이 등 놀이와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기초학력 지도 대학생(교대, 사범대) 멘토링제를 통해 기초국어, 기초수학 등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들 대학생 멘토들은 멘티 학생들에게 기초학력뿐 아니라 상담, 학습코칭, 진로 지도까지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지난 1학기 '코로나19'라는 역대급 위기 상황을 교육 현장의 협력과 지혜로 슬기롭게 극복했지만, 휴업과 온라인개학으로 인한 학습격차가 발생한 것은 문제다"며 "비록 짧은 여름방학이지만 집중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2020. 수해력 향상 여름 수학캠프'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대학 졸업반 취업·진로 맞춤형 코칭

동강대 산학협력처 취업팀, 13개 학과 1:1 전문가 상담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학생들의 진로 설계, 취업 마인드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맞춤형 코칭을 실시했다.

동강대 산학협력처 취업팀은 최근 학술정보원 1층 세종장작실에서 '2020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으로 취업동기부여 코칭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진>

동강대 취업팀은 인문사회, 보건, 공업 등 계열별로 나눠 3일간 방사선과 등 13개 학과 학생들에게 1:1 전문가 상담을 펼쳤다. 캠프는 ▲대학생활 로드맵 설정과 자

기예해 ▲취업목표 설정 및 단계별 계획 수립 ▲상황별 셀프 리더십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특히 대면 상담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영상을 통한 비대면 코칭도 실시했다.

양용준 취업부처장은 "학생들이 평소 체계적인 자기관리를 통해 자신감을 높이고 취업 경쟁력을 쌓아 사회 진출 시 목표를 달성하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지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BK21사업' 국립대 3위·전국대학 7위

24개 연구팀 예비 선정...지역대학 공동 스마트팜 인재 양성

전남대학교가 교육부 '4단계 BK21사업'에 모두 24개의 교육연구단(팀)이 예비 선정돼 전국대학 7위, 국립대학 3위의 성적을 거뒀다.

예비로 선정된 전남대 교육연구단(팀)은 미래인재양성사업유형에서 교육연구단 18개중 8개, 교육연구팀 9개중 7개이

며, 혁신인재양성사업유형에서 교육연구단 10개중 9개이다.

특히 혁신인재양성사업유형에서는 90%의 높은 선정률을 보여 전남대가 융·복합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대는 또 국내 최초 국·사립대 공동

학위과정으로 'IT-Bio 융합 시스템전공'을 개설해 지역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전국 단위의 BK21사업으로 선정됐다.

전남대는 순천대·조선대와 공동으로 스마트팜 고급인재 양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전남대는 4단계 BK21사업 준비를 위해 지난해부터 '학생성공'을 대학원 교육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대학원 혁신을 위해 선행적으로 준비해 왔다. 대학원 행

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학원혁신본부를 신설하고, 부원장, 학사·연구·국제화·취업 전담인력을 확충해 대학원 행정조직을 6명에서 12명으로 확대했다.

정병서 총장은 "전남대는 대학원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왔으며, 4단계 BK21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우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목포대 BK21사업 '바이오 의약' 예비 선정

7년간 국비 65억원 지원

목포대학교가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공모한 사업에 잇따라 선정됐다.

목포대는 10일 '서남권역 해양산림자원 기반 바이오의약보건의생명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이 최근 교육부의 4단계 BK21(두뇌한국21) 사업에서 예비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단은 약학과, 생명과학과, 해양수산자원학과, 식의약자원개

발학과 및 간호학과 교수가 참여하는 바이오의약보건의생명 융합학 협동과정 등을 통해 석·박사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 시 총 7년간 국비 64억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4단계 BK21 사업은 교육부에서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한 대형 교육지원사업으로 학문 후속 세대가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성인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시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기 위해 '2020년도 하반기 성인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올 하반기 성인문화강좌는 오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운영하고, 18일까지 수강신청을 받는다.

접수 방법은 기존 방문접수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인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도 병행한다. 단 수강료 감면대상자는 신청 당일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방문 제출해야 한다. 개설강좌는 ▲영어회화교실 ▲요가교실 ▲성인을 위한 드론입문 ▲스마트폰 활용법 ▲멋지게! 캘리그라피 ▲서예교실 ▲한글교실(가, 나) 등 총 8개 강좌로 구성됐다.

수강료는 주1회 강좌(총 16회 과정)는 5만원, 주2회 강좌(총 32회 과정)는 10만원이다. 단 한글교실은 비문해 성인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무료로 운영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